

오성 내촌초 · 한음 관인초 우승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과 대진대학교에서 개최됐다.

포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포천시 축구협회가 주관하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교육청이 후원한 가운데 19개 초등학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오성리 내촌초등학교, 한음리 관인초등학교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오성리 가산초등학교, 한음리 이동초등학교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오성리 가산초등학교, 한음리 이동초등학교가 차지했으며 공동3위는 오성리 영북초등학교와 일동초등학교, 한음리 청성초등학교와 이곡초등학교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오성리 내촌초등학교 지용재 선수, 한음리 관인초등학교 유주형 선수가 차지했으며 최다득점상은 오성리 가산초등학교 이수혁 선수, 한음리 이동초등학교 오동건 선수가 차지했다.

이번대회 우수지도자상에는 오성리 내촌초등학교 노승수 교사가, 한음리에는 관인초등학교 박동훈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유소년축구대회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유소년축구대회에서 한음리 우승을 차지한 관인초등학교 선수들이 기쁨의 순간을 영원히 남겨두기 위해 함께 모였다.

교사가 수상했다.

이번대회는 미래의 꿈나무인 유소년들이 학교 체육을 통해 배운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2007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출전할 권리가 주어진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칼럼

맑고 밝고 훈훈하게

박지상 원불교 포천교당 교무



“맑고 밝고 훈훈하게”라는 말은 몇 자 되지 않는 글귀지만 우리의 마음에 쉽게 와닿으면서도 왠지 나와 내 주변이 깨끗하고 환해지며 따뜻해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글귀를 새겨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마음공부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맑다는 것은 명상, 좌선, 염불, 기도 등을 통해 우리의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했을 때 말한다. 이 맑고 깨끗함은 우리의 머리를 아프고 복잡하게 하는 것들 즉, 번뇌망상이 끊어질 지리이다.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보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같이져서 정신과 기운이 상쾌해진다. 우리는 이 자리를 ‘휴탕’을 가리켜 그 물에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 얼굴이 흰히 비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 맑다는 것은 마음에 지혜가 열려 밝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를 말한다. 맑은 정신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의 시비(是非)를 밝게 분석하여 보고, 때때로 우주 대자연의 이치를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 깨달음을 얻고 보면 일과 이치 간에 흰히 알아지는 데 이와 같은 경지를 맑다고 하는 것이다. 훈훈함은 맑고 밝은 마음을 바탕

으로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을 잘 해나갈 때 나타나는 공덕이다. 이 공덕은 나와 내 주변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하여 따뜻함을 가져다 준다.

세상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공부를 통해 나 자신을 맑고 밝게 하더라도 일 속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열매없는 꽃과 같아 훈훈함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맑고 밝히는 공부를 하는 동시에 세상에 훈훈함을 가져다 주는 실천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사고 안전 비행 금자탑’

육군 제15항공단 513항공대대 10,000시간 무사고 비행

최근 육군 제15항공단 513항공대대는 3군 참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참모, 지역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00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무사고 비행은 지난 2001년3월 4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수립된 것으로 기록을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를 약40여 바퀴 돌 수 있으며 서울과 부산을 1천930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이번 기록은 정기적인 항공 안전의 날 행사와 체계적인 비행 안전관리 및 위험예지 워크숍 등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투임무위주의 실질적인 항공작전과 비행훈련 속에서 이루어진 기록으로 지휘관을 핵심으로 조종사, 정비사 등 전 장병이 규정과 절차에 충실한 결과라고 밝혔다.

‘10,000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행사를 주관한 군 참모장은 “항공단 전 장병이 지극한 정성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계속 무사고 부대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편, 제15항공단장은 “선배들



최근 육군 제15항공단 513항공대대는 3군 참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참모, 지역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00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무사고 기록을 이어받아 안전비행의 주체라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랑스

러운 무사고 비행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823명의 선수단 17연속 종합우승 기원

제35회 전국소년체전 필승다짐대회 한마음 다져

스포츠 꿈나무의 제전인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울산광역시에서 4일간 시·도간 경쟁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종목 823명의 최정예 경기전야들이 출전한 금번대회에서 선수단의 17연속 종합우승을 기원하고 격려하는 필승다짐대회가 지난 17일 현지 올림피아호텔 대연회장에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조용호 교육위 의장, 전근배 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교육위원과 25개 시·군 교육장, 대회관계자들이 모여 진행됐다.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의 전적 보고로 시작된 행사는 김진춘 교육감과 조용호 교육위 의장의 격려사에 이어 건배를 통해 필승을 다짐

하는 결연의 장이 되었다.

김진춘 교육감은 “무더위 속에서 치루어 지는 금번 체전에서도 출전 선수들이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은 세심한 관리와 함께 필승의 의지로 당초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춘 교육감은 16일 남중부 핸드볼 남한중학교 선수들의 격려를 시작으로, 펜싱 남·녀 선수들을 만나 관계자들과 함께 응원했고, 17일 개회식을 참석 후 육상선수단을 격려했으며 경기도선수단본부 상환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진춘 교육감은 “무더위 속에서 치루어 지는 금번 체전에서도 출전 선수들이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은 세심한 관리와 함께 필승의 의지로 당초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탈리아도 감동했습니다.” 스파게티 전문점! **휘오레**

대표 김찬미

메뉴

- 크림 베이스 ▶ 애플 크림 스파게티, 까르보니 크림 스파게티, 그린 녹차 스파게티
- 마리온 소스 베이스 ▶ 콤비네이션 스파게티, 치킨 스파게티(자연 베이스) 봉골레 스파게티
- 주요리 ▶ 안심 스테이크, 휘오레 정식, 람박 스테이크, 돈까스, 피자 치즈 돈까스, 돈까스와 오므리이스, 생선까스, 녹차 볶음밥, 치즈감자 그릴링, 김치 볶음밥, 어린이 미키마우스, 애플 볶음밥(출력)(맥주)(생맥주)

찾아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5-17 (Tel: 031)544-3999 HP 017-292-5543